

청년작가들의 열정과 상상력을 엿보다



관람객을 따라 눈동자를 움직이는 박종영 작가의 '마리오네트-눈'.



'2016 광주비엔날레 포토폴리오 리뷰 프로그램'이 광주시 서구 무각사 문화관에서 열리고 있다. 관람객이 조현택 작가의 출품한 영상 작품 '빈방'을 감상하고 있다.

무각사문화관 11월 6일까지 '광주비엔날레 포토폴리오 리뷰 프로그램'

비엔날레재단 신진작가 육성 공모전

올해부터 큐레이팅·PT 등도 지원

작가 9명 실험정신 담긴 작품 전시

무각사, 갤러리 등 문화관 무상 제공



김명우 작가가 검은색 모래로 스마트폰 QR코드를 형상화한 '모래의 흔적'.



미스엠마 작가가 출품한 동사진(왼쪽)과 작품을 구입한 관람객이 그린 작품.

관람을 쳐다보는 공허한 눈동자, 일그러진 얼굴, 돌 사진, 가짜 한국어 강의 동영상.

9월 오전 방문한 광주시 서구 무각사 문화관에서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젊은 작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작품을 볼 수 있었다.

문화관 1층 로터스갤러리와 2층 템플스테이에서는 오는 11월6일까지 '2016 광주비엔날레 포토폴리오 리뷰 프로그램'이 열린다. 비엔날레를 보고 자란 김도경, 김명우, 김성걸, 문유미, 박종영, 이인성, 이조흠, 조현택, 미스엠마 등 '비엔날레 키즈' 작가 9명이 참여한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지역 청년작가들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전시는 무각사측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비엔날레 취지에 공감한 무각사는 문화관 전체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무각사는 자체적으로도 신진작가 공모전을 열고 있던 터였다.

1층 입구를 들어서면 문유미 작가가 펼친 퍼포먼스 '심해의 소리'를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TV를 보던 문 작가가 화면에 나온 깊은 바다 속 생물 동작을 몸짓으로 표현했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은 모습에서 자연의 원초적 아름다움이 전해진다.

바로 옆에는 이조흠 작가가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현수막을 찍은 'focus no.1', 'focus no.2' 사진 작품이 걸려 있다. 이 작가는 기능을 상실한 현수막을 통해 본질과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한다.

박종영 작가는 사람 상반신을 조각 형식으로 표현한 '마리오네트-귀', '마리오네트-눈', '피노키오' 작품을 설치했다. 관람객 이동에 따라 눈동자가 쫓아 움직이며, 귀에 바람을 불면 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권력자를 추종하는 우리네 모습이다.

갤러리 안쪽으로 이동하면 3면에 그래프가 붙여져 있다. 김도경 작가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일 감정을 기록한 'Emotional graph' 작품이다. 못질, 철판 부식, 십자수 등 매년 다른 재료를 사용한 점이 특징이다.

나무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개인전 공간이다. 템플스테이 각 방을 작가 1명 작품으로 꾸며놓았다.

입구에 놓은 두꺼운 가림막을 헤치고 들어가면 한쪽 벽면에 투사된 풍경 사진이 보인다. 조현택 작가가 출품한 '빈방' 시리즈다. 나주, 함평, 광주 등의 절거가 예정된 빈 집에서 읊스쿠라 기법(빛을 차단한 공간 벽에 바늘구멍을 뚫어 밝은 바깥 풍경이 맺히게 하는 카메라 원리)으로 촬영했다. 한쪽 벽에 나란히 붙여놓은 손목시계는 절거 현장에 주운 폐품을 수리해 시간의 흐름을 표현했다.

온벽에 가로·세로 10cm 크기 돌 사진 작품을 배치한 미스엠마 작가는 관객 소통을 시도했다. 3만원 이상을 기부한 관람객에게는 작품 1점을 선물한다. 빈자리는 관람객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채워 기부 행위와 관람객 자체를 작품 일부로 삼았다.

또다른 방에는 네모난 테이블에 검은 흙으로 표현한 QR코드와 영상작품이 설치돼 있다. 김명우 작가가 제작한 '모래의 흔적'이다. 의자에 놓인 태블릿PC를 통해 QR코드를 찍으면 페이크 한국어 동영상 강좌가 나온다. 아날로그로 표현한 미디어 매체는 '시간의 간극'과 '시간의 흔적'을 상징한다. 그밖에 김성걸 작가는 다양한 자화상을 통해 인간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회화 작품 '기억상실', '지화상' 등을 출품했다. 이인성 작가도 주변 모습을 문학적 느낌으로 재해석한 '나무 심는 사람들', '비 오는 날' 등 회화를 선보인다.

한편, 비엔날레재단은 지난 2012년부터 포토폴리오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최종 선정된 2인(2012년 3명)은 본 전시에 참여할 수 있어 신인 작가들에게는 작품과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다. 비엔날레재단 입장에서 리서치 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작가들을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포토폴리오 리뷰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최종 2인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더라도 특별전과 전문가 비평, 프레젠테이션 기회를 제공한다. 문의 062-608-433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I love 완도, We go to 완도'

최선주 개인전...30일까지 LH휴랑갤러리



'완도향'

완도에 거주하며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선주 작가가 30일까지 LH휴랑갤러리(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 1층)에서 개인전 'I love 완도 You 완도 We go to 완도'를 연다. 이번 전시는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기원' 기념전이다.

완도 출신으로 조대부고, 조선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최 작가는 고향으로 귀농해 '농부화가'로 불리고 있다. 작품 대부분은 완도를 소재로 작업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도 완도 자연, 풍경, 바닷가 마을을 소재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노란색과 초록색이 인상적인 '고금면 유자농원', 분홍, 파랑 나팔꽃으로 캔버

스를 가득 채운 '바다 넘어 청산도' 등 작품 속 완도는 꿈 속 이상향이다. '해질 무렵의 매화'는 하얀 매화꽃 너머로 석양 바다를 배치해 서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약산 흑염소'에서는 풀밭에서 뛰노는 염소 모습이 정겹다.

화면 가장자리를 꽃으로 장식하며 투박한 풍경을 아름답게 승화시킨 '완도향'에서는 최씨가 얼마나 완도를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다.

최씨는 광주미술협회, 광주일요화가회, 완도 일요화가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개인전 5회, 단체전 4회에 참여하며 완도 소재 작품을 선보였다. 문의 062-360-310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문예회관 소식지 '그랑계' 10월호 발간

광주문예회관이 발행하는 소식지 '그랑계' 10월호(통권 147호)가 나왔다.

한화원 작가가 그린 '붉은 꽃'작품으로 표지를 장식한 10월호에는 광주시립교향악단 40주년 기념음악회 프리뷰와 7개 시립예술단체의 다채로운 공연 소식을 실었다.

또 시립교향악단 제12대 상임지휘자로 내정된 재일동포 김홍재씨에 대한 소개와 사물놀이 김덕수씨의 인터뷰를 담았다. 평론가 녹화씨는 칼럼 '신들의 신, 제우스'를 통해 신화와 발레에 대해 이야기하고, 김성수씨는 '파가니니가 남긴 위대한 유산'을 통해 작곡가이자 바이올리



니스트 파가니니에 대해 살펴본다. 그밖에 아트스페이스 코너에서는 문예회관 갤러리 큐레이터 김아연씨가 '2016 광주비엔날레'를 찾았다. '그랑계'는 문예회관 등에서 만날 수 있으며 홈페이지(gjart.gwangju.go.kr)에서도 볼 수 있다. 문의 062-613-8353. /김미은기자 mekim@

황영성·박석규·송웅·박동인·박종수·신동원·박성현·전희진·정윤태

원로작가 9인 특별전

기간: 2016. 10.11(화)~11.11(금)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비물관갤러리

개막일시: 2016. 10. 11 pm 5:00

세계조각·장식박물관 ☎(062)222-0072 (예술의거리 서문입구)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4~2016 3년연속 우수축제

자연의 맛 그대로, 순창의 맛 세계로

제11회 순창장류축제

2016. 10.13(목)~10.16(일) 4일간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 상설체험코너 - 우리가족 떡볶이 만들기, 전통장류 소스 만들기, 장류 캐릭터 메주만들기, 메주먹은 장어잡기

★ 붉은옷 착용시 농특산물·먹거리 할인 혜택

★ 순창을 시가지 - 축제장 셔틀택시운영

순창장류축제 주요 일정표

10월 13일(목)			10월 14일(금)		
09:00 ~ 12:00	관객과 함께하는 민속놀이	놀이마당	10:00~11:00	순창음악협회 "밴드공연"	주무대
14:00 ~ 16:00	장&뮤직 뽕박 인디밴드 경연	주무대	12:00~13:00	청정원과 함께하는 고추장비빔밥	놀이마당
17:30 ~ 18:20	축제 서막	주무대	13:00~15:00	2016 장류고을 청소년 어울마당	주무대
18:20 ~ 20:00	청정원과 함께하는 어는 공연 (설운도, 정수라, 주병선, 이예란, BIG, 오로라, 이진관 등)	주무대	14:00~16:00	순창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공연	부무대
20:00 ~	민속마을 EDM 불빛쇼	민속마을	15:00~16:00	민속춤타기 공연	놀이마당
			16:00~18:00	순창 5대명창 추모공연	주무대
			19:00~21:00	전북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연극, 연가)	주무대
			20:00~	민속마을 EDM 불빛쇼 장류마을 춤비이 놀자	민속마을

10월 15일(토)			10월 16일(일)		
10:00~12:00	어린이 장류 그림그리기 대회	민속마을	09:00~13:00	농악 퍼레이드(읍면 농악경연)	주무대
11:00~12:00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공연	주무대	12:00~13:00	2016인본 떡볶이 만들기	부무대
12:00~13:00	장류주먹밥 모자이크	부무대	13:00~14:00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민속마을
13:00~14:00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민속마을	14:00~16:00	순창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공연	부무대
14:00~16:00	전북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발레, 연극)	주무대	15:00~17:00	전북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뮤지컬)	주무대
16:00~17:00	민속춤타기 공연	놀이마당	18:00~20:00	기회 콘서트(소찬휘)	주무대
17:00~18:00	국가대표 매운맛 대회	놀이마당	20:00 ~	민속마을 EDM 불빛쇼	민속마을
18:00~20:00	전북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댄스)	주무대			
20:00 ~	민속마을 EDM 불빛쇼 장류마을 춤비이 놀자	민속마을			

특별 부대행사

- 제2회 전국시조영인대상 경향대회 / 10. 13(목) 09:30 순창곡악원
- 제12회 장류국제포럼 / 10. 14(금) 13:30 순창군장류사업소세미나실
- 제13회 순창고추장요리경연 / 10. 15(토) 13:00 순창군 국민체육센터

주최/주관: 순창군/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한국관광공사

www.jangfestival.co.kr